

사 회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 맞아 일제 강점기를 반성하는 일본 시민들로 구성된 일본 '평화통신사'가 18일 광주YMCA에서 광주시민들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를 기원하며 증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日 ‘평화통신사’ 광주 사죄방문

5·18묘지 참배·근로정신대 할머니 면담 ... “침략 반성”

목사·주부 등 11명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과거 침략을 반성하고 사죄하기 위해 일본의 민간사절단인 ‘평화통신사’가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다. 18일 오후 3시40분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 광주YMCA 백제실에서 모인 일본 평화통신사 11명은 “일본 메이지 시대 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부를 멸시하고 침략의 역사로 한국인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일본의 죄악과 과거의 역사에 대해 인정하고 새로운 한일 평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사죄했다. 이날 모인 일본 평화통신사 11명은 목사·주부·대학생 등으로 이뤄졌으며, 근로정신대사민모임의 김희웅 대표와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이철우 광주 YMCA이사장, 김병균 광주NCC 목사 등이 만나 새로운

한일 관계를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철우 광주 YMCA이사장은 환영사에서 “한일 강제병합 100년과 해방 65주년을 맞이한 역사적인 해에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 방문을 환영한다”며 “지난 3월 전안함 사건 이후 한반도가 전쟁 위기에 휘말린 상황에서 일본의 평화통신사가 광주로 온 것은 매우 귀하고 의미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에 평화통신사 후가미 세이조 목사는 “부산을 시작해 한국 각지를 순례한 지 닷새째인데, 과거 100년을 회고하고, 아시아 침략의 역사를 반성했다”며 “일본의 죄악과 과거의 역사에 대해 직시하고 사죄한 뒤 협력하고 연대해 동아시아의 평화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조출한 환영식을 마친 한·일 참가자들은 색종이로 만든 평화비행기를 날리며, 양국과 아시아의 평화를 기

원했다. 광주를 방문한 일본 평화통신사는 환영식에 이어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으며, 19일까지 머물며 나주 독립학생기념관과 향교를 둘러보고 영광으로 이동해 순례를 이어간다. 이들은 지난 14일 부산을 시작으로 역사상 일본이 한국에 대해 심하게 압제를 가했던 지역을 순회하며 29일까지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1592년 임진왜란(동북아전쟁)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의 등장으로 조선과 일본이 화해하면서 조선은 1607년 일본에 조선통신사를 파견했으며, 이후 12차례의 조선통신사 파견으로 200여 년간 평화로운 시대가 유지됐었다. 일본 ‘평화통신사’는 이 같은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일본 시민들이 조직한 민간사절단이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임자도 ‘해안사구’ 인공제방 때문 침식 가속화

환경과학원 조사

신안군 임자도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모래언덕인 해안사구(砂丘)의 침식이 해안가에 설치된 인공제방 때문에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해안사구 정밀조사를 실시해 18일 같은

결과를 밝혔다. 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사구는 임자도 서해안을 따라 길이 6km, 최대 폭 600m에 걸쳐 있으며, 전체 면적이 220만㎡으로 국내 최대 규모다. 사구 지대에 대한 연대측정 결과 사구는 최소 2천년 이전에 형성됐으며, 식물의 유해가 진흙과 함께 늘어나 못의 물 밑에 퇴적한 이탄층(泥炭

層)이 포함돼 있어 과거 기후와 해수면 변동에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될 것이라고 과학원 측은 전했다. 그러나 사구가 있는 남쪽 해안선을 따라 옹벽과 인공제방 등이 설치돼 해안과 사구의 침식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부취재본부=조원남기자 wncho@연합뉴스

“체벌금지·학생인권 법령으로 명시한다”

교육개발원, 대체 지도수단 마련키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체벌금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 당국이 이런 내용을 아예 법에 명시하고 대체 지도수단을 마련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김태완)은 18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학생권리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위탁받은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은 ‘학생권리와 학교교육의 사명,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발표에서 체벌금지, 학생인권 보장 등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우선 학교체벌의 경우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고 돼 있어 사실상 체벌을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

에서는 이를 금지했다. 강 부총장은 ▲체벌을 완전 금지하되 다양한 대체별 지도수단을 법령에 명시하는 1안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신체적 접촉 및 도구사용)는 금지하되 간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벌(손들기, 팔굽혀펴기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2안 등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대체별로는 훈계, 학생·보호자와 상담, 학교 내 자율적인 조정, 교실 안팎에서 별도 학습조치 또는 특별과제 부여, 점심시간 또는 방과후 근신조치, 학업점수 감점, 학급교체 등 7가지를 들었다. 또 학생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현행법령에는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처분 등 4가지가 규정돼 있으나 개정안은 특별교육 이수와 퇴학처분 사이에 ‘출석정지’를 포함시켰다. 학생인권과 관련해서는 ‘교육목적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인권을 보장한다’는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연합뉴스

전남대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올 2학기부터

전남대가 광주·전남지역 국립대학교로는 처음으로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했다. 전남대는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과 납부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 오는 2학기 등록금 수납 때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대 학생들은 오는 23일 시작되는 2학기 등록금 납부부터

광주는행 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최장 6개월까지 할부납부도 가능하다. 전남대는 광주은행과 협의를 거쳐 등록금 할부납부 수수료를 일반수수료(연 12.5~18%)보다 더 낮은 연 7.5~9%로 조정,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전남대는 지금까지 일시불 납부, 분할 납부(3회), 학자금 대출(일반상환제, 취업 후 상환제) 등으로 등록금을 받아왔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전남대서 호남권 대입 수시 설명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는 19일 호남권을 시작으로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2011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의 약 62%를 수시모집에서 선발하고 수시 인

원의 약 15%를 입학사정관제로 뽑기로 하면서 수시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권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대교협은 설명했다. 호남권 대입설명회는 19일 오후 2시 전남대 강당에서 열린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55분
해지기 19시 17분

달돋이 15시 41분
달지기 00시 36분

서울

인천

대전

전주

광주

여수

부산

제주도

목포

울릉도·독도

강릉

청주

충청

광주

전주

대전

서울

인천

부산

제주도

목포

울릉도·독도

강릉

청주

충청

광주

전주

대전

서울

인천

부산

제주도

목포

울릉도·독도

강릉

청주

충청

광주

전주

대전

서울

인천

부산

제주도

목포

울릉도·독도

강릉

청주

충청

광주

전주

대전

서울

인천

부산

제주도

목포

울릉도·독도

강릉

청주

충청

광주

전주

대전

서울

인천

부산

제주도

목포

울릉도·독도

강릉

청주

충청

광주

전주

대전

서울

인천

부산

제주도

목포

울릉도·독도

강릉

청주

충청

광주

전주

대전

서울

인천

부산

제주도

목포

울릉도·독도

강릉

청주

충청

광주

전주

대전

서울

인천

부산

제주도

목포

울릉도·독도

강릉

청주

충청

광주

전주

대전

서울

인천

부산

제주도

목포

울릉도·독도

강릉

청주

충청

광주

전주

대전

서울

인천

부산

제주도

목포

울릉도·독도

강릉

청주

충청

광주

전주

대전

서울

인천

부산

제주도

목포

울릉도·독도

강릉

청주

충청

광주

전주

대전

서울

인천

부산

제주도

목포

울릉도·독도

강릉

청주

충청

광주

전주

대전

서울

인천

부산

제주도

목포

울릉도·독도

강릉

청주

충청

광주

전주

대전

서울

인천

부산

제주도

목포

울릉도·독도

강릉

청주

충청

광주

전주

대전

서울

인천

부산

제주도

목포

울릉도·독도

강릉

청주

충청

광주

전주

대전

서울

인천

부산

제주도

목포

울릉도·독도

강릉

청주

충청

광주

전주

대전

서울

인천

부산

제주도

목포

울릉도·독도

강릉

청주

충청

광주

전주

대전

서울

인천

부산

제주도

목포

울릉도·독도

강릉

청주

충청

광주

전주

대전

서울

인천

부산

제주도

목포

울릉도·독도

강릉

청주

충청

광주

전주

대전

서울

인천

부산

제주도

목포

울릉도·독도

강릉

청주

충청

광주

전주

대전

서울

인천

부산

제주도

목포

울릉도·독도

강릉

청주

충청

광주

전주

대전

서울

인천

부산

제주도

목포

울릉도·독도

강릉

청주

충청

광주

전주

대전

서울

인천

부산

제주도

목포

울릉도·독도

강릉

청주

충청

광주

전주

대전

서울

인천

부산

제주도

목포

울릉도·독도

강릉

청주

충청

광주

전주

대전

서울

인천

부산

제주도

목포

울릉도·독도

강릉

청주

충청

광주

전주

대전

서울

인천

부산

제주도

목포

울릉도·독도

강릉

청주

충청

광주

전주

대전

서울

인천

부산

제주도

목포

울릉도·독도

강릉

청주

충청

광주

전주

대전

서울

인천

부산

제주도

목포

울릉도·독도

강릉

청주

충청

광주

전주

대전

서울

인천

부산

제주도

목포

울릉도·독도

강릉

청주

충청

광주

전주

대전

서울

인천

부산

제주도

목포

울릉도·독도

강릉

청주

충청

광주

전주

대전

서울

인천

부산

제주도

목포

울릉도·독도

강릉

청주

충청

광주

전주

대전

서울

인천

부산

제주도

목포

울릉도·독도

강릉

청주

충청

광주

전주

대전

서울

인천

부산

제주도

목포

울릉도·독도

강릉

청주

충청

광주

전주

대전

서울

인천

부산

제주도

목포

울릉도·독도

강릉

청주

충청

광주

전주

대전

서울

인천

부산

제주도

목포

울릉도·독도

강릉

청주

충청

광주

전주

대전

서울

인천

부산

제주도

목포

울릉도·독도

강릉

청주

충청

광주

전주

대전

서울

인천

부산

제주도

목포

울릉도·독도

강릉

청주

충청

광주

전주

대전

서울

인천

부산

제주도

목포

울릉도·독도

강릉

청주

충청

광주

전주

대전

서울

인천

부산

제주도

목포

울릉도·독도

강릉

청주

충청

광주

전주

대전

서울

인천

부산

제주도

목포

울릉도·독도

강릉

청주

충청

광주

전주

대전

서울

인천

부산

제주도

목포

울릉도·독도

강릉

청주

충청

광주

전주

대전

서울

인천

부산

제주도

목포

울릉도